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환경부와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기후환경본부, 2020.02.)에 따르면 2020년 1만 대, 2022년까지 누계 8만 대를 추진목표로 연차별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노후 경유차 전기차 전환 유도 및 수요에 맞춘 전

기승용 지속 보급, 전기택시 및 전기사내버스에 이어 경유 마을 버스까지 전기차 전환대상 확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도심 배달용 전기화물차 보급 역량 집중,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 배달용 중심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공공분야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 준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차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거대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본과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는 거대 사업자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유망한 기술력 있는 사업자들이 이들과 정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터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미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생산 전기화물차에 대해 시보조금을 우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인 그린뉴딜 친환경차 사업이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우수 세계대기업과 공정한 무대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산을 무조건 우대하는 내용이 아닌 거대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